

## I. 파견대학

### 1. 개요

싱가포르는 중국계, 인도계, 말레이계 등 다양한 민족들이 모여서 살아가는 나라이며 공용어는 영어, 중국어, 말레이어입니다. 따라서 여러 문화 및 민족, 인종이 서로 존중하고 존중되는 사회입니다. 나라 자체는 서울보다 약간 큰 정도이고 교통 등 사회 인프라가 굉장히 잘 발달되어 있으며 치안도 좋습니다.

난양공대는 싱가포르의 3 개의 국립대학 중 하나이고, 세워진 지 얼마 되지않은 젊은 학교임에도 2018 년 QS 랭킹 아시아 1 위를 차지하는 등 수준이 높은 학교입니다. 싱가포르가 우리나라만큼이나 경쟁이 치열하고 학구열이 굉장히 높는데 난양공대에서 그것을 많이 느낄 수 있었습니다. 학교는 싱가포르 서쪽에 위치하고 말레이시아와 굉장히 가깝습니다. 학교 크기 자체는 서울대보다 크지만 강의는 붙어있는 큰 두개의 건물에서 주로 진행이 됩니다. 또한 현지 재학생 수도 많고 교환학생도 굉장히 많아서 국제화가 잘 된 학교라고 느꼈습니다. 같은 아시아권뿐만 아니라 특히 유럽과 북미에서 많은 학생들이 오기 때문에 다양한 친구들을 사귄 수 있습니다.

## II. 학업

### 1. 수강과목 설명 및 추천 강의

저는 조선해양공학과지만 기계공학과 소속으로 수업을 들었습니다. 기계과 전공수업으로는 3 학년 수업인 Mathematical Methods in Engineering(MA3004), Heat Transfer(MA3003), 4 학년 수업인 Fluid Dynamics(MA4002)를 들었고, 어학 수업으로는 Chinese level 1(LC9001), 운동 수업은 Basketball(SS9104)를 들었습니다.

MA3004 수업은 세 교수님이 각각 PDE, FEM, CFD 의 기본을 다루십니다. 쉽습니다.

MA3003 수업은 두 교수님이 conduction, convection, radiation, fin, heat exchanger 등을 가르쳐 주시는데 이 과목은 현지 기계과 학생들에게 힘들기로 유명한 과목입니다. 그래도 재미있게 들었습니다. 교수님이 굉장히 잘 가르쳐 주십니다. 저는 정말 듣고 싶었던 내용이라 좋았습니다.

MA4002 수업은 두 교수님이 potential flow, compressible flow, transient flow, fluid machine 등을 가르쳐 주십니다. 이 과목도 힘들기로 유명한 과목입니다. 그래도 마찬가지로 정말 재미있게 들었습니다. 이것도 정말 듣고 싶었던 내용이라 좋았습니다.

수업은 lecture 와 tutorial 로 나누어져 있는데 공대 수업은 거의 대부분 lecture 가 녹화가 되어 tutorial 과는 다르게 굳이 lecture 는 가지 않아도 됩니다. MA4002 는 lecture 로만 이루어져 있는데 tutorial 시간을 나중에 추가해서 수업합니다. 그리고 수업들이 복잡한 식을 외우기보다는 개념 이해에 초점이 훨씬 더 맞춰져 있습니다. 힘들고 경쟁이 심하다고 하지만 한국에서 하던

대로하면 충분히 좋은 결과를 낼 수 있습니다. 물론 좋은 성적을 받아도 그 점수가 서울대 성적에 반영되지는 않습니다.

싱가포르는 중국어도 공용어로 쓰고 있기 때문에 중국어 어학 수업을 들어보시는 걸 추천합니다. 정말 재미있었습니다. Level 1 수업이라 그런지 몰라도 유치원생이나 초등학생처럼 말하고 놀면서 영어로 중국어를 배우니 정말 재미있었습니다. 부담감도 크게 없었습니다. 중국어가 아니라도 어학 수업은 꼭 하나 들어보시는 것을 추천합니다. 어학 수업은 course contents: Humanities 에서 찾으실 수 있습니다.

중국어 수업이 교환학생들과 많이 친해질 수 있었던 기회였다면 농구 수업은 현지 학생들과 많이 친해질 수 있었던 기회였습니다. 농구 수업에서는 저 혼자 교환학생이었습니다. 싱글리시가 특히 잘 이해가 안될 때도 있었지만 싱가포르 학생들이 대부분 한국인에 호의적이기도 하고 같이 운동하며 많이 친해져서 재미있었습니다. 운동 수업은 날이 더워서 주로 아침이나 저녁에 합니다. 현지 학생들과 많이 친해질 수 있는 기회이므로 들어 보시는 것을 추천합니다. 필기시험은 한국에서 들었던 농구 수업보다 좀 더 힘든 편이었습니다. Course contents: Sport science & Management에서 찾으실 수 있습니다.

이 외에 다른 친구들이 듣는 것 중 재미있어 보였던 것은 사진 수업과 3D 모델링 수업이었습니다. Course contents([https://wis.ntu.edu.sg/webexe/owa/aus\\_subj\\_cont.main](https://wis.ntu.edu.sg/webexe/owa/aus_subj_cont.main))에서 잘 확인해서 듣고 싶으셨던 과목, 재미있어 보이는 과목을 수강하시기 바랍니다. 어차피 패스만 하면 되니까요.

## 2. 외국어 습득 정도

어딜 가든 사실 자기가 노력하기에 따라 달린 것 같습니다. 자신이 얼마나 영어를 쓰는 환경에 노출되는지, 얼마나 자신감 있게 말하는지 등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. 저랑 친하게 지냈던 한국인 친구 한명은 먼저 외국인들에게 자신감 있게 다가가 친해지려고 노력하고, 모르는 표현 등을 묻고, 유튜브에서 표현을 공부하는 등 열심히 노력하여 4개월이라는 짧은 기간 안에 외국어 실력이 매우 늘었습니다. 먼저 말을 거는게 힘들고 내성적인 분이시라면 수업 자체를 말을 많이 하는 수업이나 외국어 수업, 운동수업처럼 자연스럽게 친해질 수 있는 수업으로 듣는 것도 좋은 방법 같습니다.

## 3. 학습 방법

저는 한국에서 공부할 때와 비슷하게 공부 했었는데, 하나 큰 차이점이 있다면 수업을 잘 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. 이 학교의 공대 강의 다수는 lecture가 녹화가 됩니다. 수업을 현장에서 듣고 복습으로 lecture를 다시 보았을 때 시간이 너무 걸리는 것 같아 수업은 안가고 lecture만 열심히 들었습니다. 그 나머지 부분들은 각자의 공부 방식대로 하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. 언어만 달라졌을 뿐이니까요. 그리고 학교 자체에서 final 시험 기출을 전부 학교홈페이지에 올려둡니다. 그것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

### III. 생활

#### 1. 입국 시 필요한 물품 및 현지 물가 수준

입국 시에 필요한 서류들은 메일로 안내되는 사이트에서 확인하실 수 있는데 꼼꼼하게 확인하시고 챙기셔야 합니다. IPA letter, eForm 16, Letter of Enrolment/Admission, 최근에 찍은 여권사진 등등이 있습니다. 물품들 중 꼭 필요한 것은 가디건 같은 긴 소매 옷입니다. 실내 냉방이 엄청 셉니다. 챙겨서 다니셔야 합니다. 화장품 같은 것은 한국에서 챙겨 가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. 기숙사에 침대 시트나 베개, 이불 등은 dorm buddy라고 대여를 해주는 곳이 있긴 한데 별로 추천드리지 않습니다. 서비스가 정말 안 좋습니다. 이케아나 학교에서 버스를 타면 갈 수 있는 Jurong Point 같은 곳에서 사는 걸 추천 드립니다. 그리고 공유기를 꼭 챙겨 가지길 바랍니다.

제가 느끼기에 현지 물가는 서울의 1.5배정도였습니다. 학교 내 canteen에서 파는 음식도 서울대 학식의 1.5배정도로 느꼈습니다. 게다가 리필도 안됩니다. 과일은 가격이 싼 편이었던 것 같고, 술은 꽤 비쌌습니다.

#### 2. 식사 및 편의시설(의료, 은행, 교통, 통신 등)

식사는 학교 내 canteen에서 먹거나 학교 밖의 호커센터 등에서 먹었습니다. 가장 자주 이용한 것은 교내 맥도날드, 버거킹, 피자헛, 서브웨이 였습니다. Tamarind hall canteen의 한식이 매우 유명하고 저도 자주 갔었습니다. Canteen의 수가 꽤 많기 때문에 여러 군데를 시도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.

은행은 제가 계좌를 따로 만들지 않아서 잘 모르겠습니다. 귀찮아서 수수료를 떼이더라도 ATM에서 뽑아서 썼습니다. North spine의 ATM기기에서 수수료가 적게 들기 때문에 그곳을 그냥 이용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.

교통은 일단 uber와 grab을 엄청나게 많이 썼었는데, uber는 더이상 이용할 수 없습니다. 대중교통의 경우 student matriculation card와 ezlink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. Ezlink는 우리나라의 일반 교통카드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저는 지하철 역에서 사서 썼고 matriculation card를 받고 나서는 그것만 쓰고 ezlink 카드는 기념으로 가지고 있었습니다. 지하철 역 등에서 충전하여 쓸 수 있고 Nets Flash Pay라고 일반적인 결제에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. 대중교통요금은 우리나라랑 비슷했던 것 같습니다.

통신은 보통 Singtel이나 Starhub Sim card에 top-up을 하여 이용하였습니다. 기숙사 방에서는 와이파이를 이용하였고 학교 건물에서는 교내 와이파이 중 NTU-secure(?)를 이용하였습니다. 학교 와이파이로는 카카오톡 사진 주고받기가 잘 안되어 사진이나 동영상 주고받을 때만 데이터를 썼습니다. 세븐일레븐 같은 곳에서 top-up하고싶다고 하고 돈을 지불하고 폰 번호를 입력하면 account에 돈이 충전이 됩니다. 그 후에 앱에서 다시 그 충전된 돈으로 데이터를 구입해야 합니다. 20sgd로 3GB정도를 살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.

#### 3. 여가 생활

술을 많이 마셨습니다. 술이 꽤 비쌉니다. 그리고 밤 10시 반 이후에는 술을 팔지 않습니다. 그래서 친구들과끼리 돈을 모아서 위스키나 보드카 등을 면세점이나 마트에서 사서 즐겼습니다.

학교 안에 수영장과 운동시설이 꽤 잘 되어있어서 그곳들도 많이 이용했습니다. 수영을 좋아하신다면 수영복도 챙겨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야외 50m 풀이 8레인 정도 있고, 선탠도 할 수 있습니다. Tamarind hall이나 North hill에는 헬스장이 있고 체육관 쪽에서는 공도 빌릴 수 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. 운동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

학기 중간에 여행도 굉장히 많이 다닐 수 있습니다. 싱가포르 자체가 다른 나라들과 가까워 상대적으로 저렴하고 빠르게 여행을 많이 다닐 수 있습니다. 또 학기 중간에 recess week라고 한 주를 쉬는 기간이 있는데 보통 현지 학생들은 못다한 공부를 하지만 교환학생들은 열심히 여행을 다닙니다. 저도 학기 중에 4~5번 여행을 갔던 것 같습니다.

#### **IV.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마치는 소감**

외국에서 학교를 다니고 꽤 오래 생활해왔다는 것 자체로도 큰 의미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. 외국 대학에서의 교육환경이나 분위기를 보고 우리나라의 환경과 비교하면서 느낀 점도 많았습니다. 여러 나라에서 온 학생들과 같이 경쟁하면서 자신감도 얻고 실력도 키울 수 있는 좋은 기회였던 것 같습니다. 또한 다양한 민족들이 사는 싱가포르에서 여러 문화권에서 온 친구들과 생활하면서 우리나라에서 느낄 수 없었던 다문화, 다인종에 관련된 것들도 많이 느끼고 배울 수 있었습니다. 이런 기회를 갖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.